

# 음운론적 변이에 의한 신조 상말의 생성에 대하여

박 철 주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A Study on Newly-coined Cant creations in compliance with Phonological Variation

Cheolju Park  
Hansung University  
E-mail : sunvim@unitel.co.kr

### Abstract

We encounter new cant in these days. The cant is classified as 'variation cant' which is used in the communication language.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aspect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ant in communication language.

###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자주 접하게 되는 상말<sup>1)</sup>로서 예전에는 쓰이지 않던 상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상말의 생성이 예전에 비해 매우 활성화 되었는데 그 주요인은 컴퓨터 통신과 상말 금지 프로그램에 의해서이다.

컴퓨터 통신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 상말이 자주 쓰이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상말 금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말 방지책은 오히려 상말의 음운적 변이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변형 상말을 양산해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상말이 변형되어 새로운 상말로 쓰이고 있다. 상말의 음운적 변이에 있어서의 근본 원인은 상말 금지 프로그램이 상말을 음운적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말로 규정된 말의 음운 중 하나만 피해

도 대체적으로 상말 금지 프로그램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에 통신언어에서는 변형된 상말의 생성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통신언어에서는 '려차(fuck을 한글로 친 것)', 'KIN(너는 짜증나서 상대하기 싫은 놈이라는 뜻)', '뽕(어이없는 놈/어이없음)' 등과 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말도 생성해내어 쓰고 있으나, '스팍(씨발)', '쉐리(새끼)', '조넨(좃나)' 등과 같이 기존의 상말에서 음운만을 변이시킨 상말도 생성해내고 있다.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음운상 변형 상말을 다루고자 한다.

음운적 변이 상말은 초기에는 통신언어에서만 쓰였으나 점차 그 세력이 확대되어 지금은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만화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온라인상의 상말이 오프라인상의 상말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증거의 예로써 만화의 장면을 들어 보일 것이다.

만화에서는 기존의 상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언어상의 변형 상말을 사용하는 것은 변형 상말이 비록 기존의 상말임에도 불구하고 어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이는 변형 상말을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새로운 상말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운상 변이 상말을 기존의 상말이 아닌 새로운 어감의 신조 상말인 것으로 다룬다.

1) 본고에서의 '상말'이란 용어는 욕말 외에 접잡지 못한 말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 II. 음운적 변이 상말의 분석

통신언어에서 쓰이는 음운적 변이 상말의 종류와 유형은 실로 다양하다. 여기서는 변형 상말의 종류와 그 유형을 분석하여 이들이 보이는 음운상 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 2.1 음운첨가와 음운탈락에 의한 상말

음운에 변이를 주는 방법으로서 가장 간단한 것은 기존의 음운에 새로이 음운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음운에서 어느 음운을 탈락시키는 것일 것이다. 통신언어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의한 상말 생성을 볼 수 있다.

#### 2.1.1 음운첨가

통신언어에서의 상말에는 음운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음운을 새로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음운의 첨가는 첫 글자에 종성을 첨가하고 있다.

##### (1) 닝기미(니기미), 썩끼(새끼)

그리고 여기에다 음운을 변이시켜 재차 변형을 주기도 한다.

##### (2) 닝기미(니기미), 닝기리(니기미), 닝기리(니기미)

(2)와 같은 경우의 상말은 (1)의 '닝기미'를 다시 변형시킨 것이므로 '닝기미'와 소위 유사음 동의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통신언어에 있어서 서로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다.

#### 2.1.2 음운탈락

통신언어에서는 상말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음운을 첨가하는 반면에 탈락시키기도 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을 보인다.

##### (3) 가. 끝 글자 종성 탈락 : 씨바(씨발)

나. 끝 글자 초성·종성 탈락 : 짱(짜증)<sup>2)</sup>

다. 종성 및 초성 탈락 : 씨바/스바(씨발), 스바르  
 □(씨발놈아), 바스(병신), 개자스(개자식)

2) '짱'은 '짜증'에 대한 통신언어로서 본래 '짜증'은 상말이 아니나, '짱나는 것들', '너는 짱나는 애야', '짱나고 재수 없어'와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통신언어에서의 '짱'은 상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음운탈락에 있어서 (3다)의 경우는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쓰일 것 같으나 실제로는 (3다)에서 보인 예 정도만 쓰이고 있다. (3다)에서처럼 '개자스(개새끼)', '스바(썩끼)'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상말도 자유롭게 만들어 쓸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3다) 정도의 상말 외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외는 상말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신언어에서는 '스바/스바, 스바르□, 바스, 개자스' 등이 한낱 당소리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상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3 음운변이

통신언어의 변형 상말은 주로 음운의 변이에 의해 생성되어지고 있다. 이들 음운변이 상말들은 다음과 같은 변이를 보인다.

##### (4) 가. 첫 글자 초성 변이 : 까시나(가시나), 후라질(우라질)

나. 첫 글자 중성 변이 : 씹새끼(씹새끼), 병신(병신), 시끼(새끼), 닉미(니미)

다. 첫 글자 초·중성 변이 : 된장(젠장),

라. 첫 글자 중·종성 변이 : 분신/뵤신(병신), 잔나/쫄나(좃나)

마. 가운데 글자 초성 변이 : 개래끼(개새끼)

바. 가운데 글자 중성 변이 : 지자스(Jesus:지저스)

사. 가운데 글자 초성·중성 변이 : 주탱이(주둥이)

아. 가운데 글자 초·중성 변이 : 개멍구(개친구-개 같은 친구)

자. 끝 글자 초성 변이 : 병진(병신), 새리(새끼)

차. 끝 글자 초·중·종성 변이 : 지봉(지랄)

카. 첫 글자 중성 및 끝 글자 초성 변이 : 웨이/웨리(새끼)

타. 첫 글자 중성 및 끝 글자 중성 변이 : 쓰블/쓰벌(씨발)

파. 첫 글자 중성 및 끝 글자 종성 변이 : 싸방(씨발)

하. 첫 글자 중·종성 변이 및 끝 글자 초성 변이 : 절라(좃나)

(4)에서의 음운적 변형 상말들은 단지 어느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2.2 복합적 음운변이

변형 상말은 앞에서와 같이 단순히 음운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음운 현상에 의하여 상말의 음운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즉, (5가)의 경우는 첫 글자 초성의 평음화 및 다음 글자의 연음화에 의해 음운에 변이를 주었고, (5나)는 첫 글자 초성의 평음화 및 끝 글자의 종성 변이에 의해 변형 상말을 만들었다. 그리고 (5다)는 첫 글자 초성의 평음화 및 끝 글자 초성·종성의 변이에 따른 상말이고, (5라)는 첫 글자 종성 탈락과 끝 글자 종성 변이 및 종성 첨가에 의한 변형 상말이다.

### (5) 가. 시바련(씨발련)

나. 시방(씨발)

다. 스팩(씨발)

라. 조넨(죇나)

그리고 이 외에 분철식으로 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음운에 변이를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변형 상말도 있다.

### (6) 짤알(지랄), 털아이(또라이), 색히(새끼)

이들은 순수하게 분철만으로 이루어진 상말은 아니나 음운의 주요 변이를 분철에 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 2.3 영어 알파벳 이니셜화 음운변이

통신언어의 여러 변형 상말 중 가장 특이한 것은 변이시킨 음운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를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음운의 영어 알파벳으로 고쳐 쓴 상말이라 할 것이다.

### (7) 가. DDR : 딸딸이>딸파리>ㄸㄸㄸ>ㄸㄸㄸ>D(ㄸ)D(ㄸ)R(ㄸ)

나. SSB : 썩새바리>쓰쓰바리>스스바>S(스)S(스)B(브)

다. C양 : 쌍>씨양>C양

(7)에서와 같은 상말들은 통신언어의 변형 상말 중에서도 가장 특이하게 생성된 상말이라 할 수 있다.

## III. 오프라인에서의 변형 상말

지금까지 분석한 변형 상말들은 모두 통신언어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부 인터넷 채팅상에서 쓰이는 상말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변형 상말은 곧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히 우려할 일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들 상말이 온라인상에서만 쓰인다는 가정하에서의 일이다. 만일 매체에 대한 상말의 저장성이 반영구적이고, 상말이 쓰이는 곳이 온라인처럼 폐쇄적이 아니라 오프라인처럼 공개적인 환경이라면 이들 상말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하나의 어엿한 상말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프라인의 환경이면서 정보의 저장성이 반영구적인 매체 중에는 ‘만화’가 있다. 이 만화에서 우리는 통신언어상의 변형 상말을 접하게 된다.



[그림1 변형 상말이 쓰이고 있는 만화]

만화는 상말 금지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없는 오프라인에 속하므로 굳이 상말을 음운적으로 변형시킬 필요가 없다. 아래의 예가 바로 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이들 만화에서는 일상의 상말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림2 일상 상말이 쓰이고 있는 만화]

그러므로 만화에서 변형된 상말이 쓰인다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음운적으로 변형된 상말이 기존 상말의 변형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상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통신언어에서 접하게 되는 상말 중에서 기존 상말을 음운적으로 변형시킨 상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들 음운변이 상말들은 ‘음운첨가’, ‘음운탈락’, ‘복합적 음운변이’, ‘영어 알파벳 이니셜화 음운변이’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생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음운적 변이 상말들이 단지 온라인상의 상말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프라인상으로도 그 사용 영역이 넓어졌음을 만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방/스팍/싸방/쓰벌/쓰블/씨바(씨발)’이나 ‘새리/색히/썩끼/썩리/썩이/시끼(새끼)’처럼 동일한 기존 상말에 대해 여러 유형의 변이상말을 생성해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모두가 쓰이지 않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들 중에는 만화나 기타 다른 환경에까지 진출하여 하나의 완전한 상말로 살아남을 상말이 있으리라 본다.

현재 만화와 일상 언어생활에서 ‘조넨’이나 ‘썩이’ 같은 변형 상말은 하나의 완전한 상말로 거의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언어에서 음운적 변

이 상말의 생성이 왕성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상말 금지 프로그램에 있다. 따라서 이들 상말의 생성 원리를 잘 파악하여 최대한 변이 상말이 생성되지 않게끔 상말 금지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말도 국어의 한 유형이며, 대화에 있어서 상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인터넷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상말을 금지시키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인터넷 채팅이 일반 대화와 성격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형 상말의 마구잡이 생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하지 않은 상말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권오경·서은아, 인터넷 통신언어휘 사전, 동인, 2002
- [2] 김주덕, “고등학생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3] 박철주, “컴퓨터 통신언어의 의미장에 대한 연구,” 부산한글 제24집, pp.63~84, 2005
- [4] 박철주, “PC 통신언어 명사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교육 119, pp.457~486, 2006
- [5] 박호관,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실태와 그 의미,” 우리말글교육 8, pp.313-357, 2005
- [6] 손세모들, “인터넷 게시판 글 제목의 욕설/비속어 사용과 익명성의 관계,” 텍스트언어학 15, 언어학회, pp.169-198, 2003
- [7] 신기상, “우리말 욕설 연구,” 국어교육 79·80, pp.15-46, 1992
- [8] 이별하나·이주인, “국민학교 아동의 유행어와 욕말 사용에 대한 연구,” 국어과교육 16, pp.145-168, 1996
- [9] 이선희, “컴퓨터 대화방 언어고찰,”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0
- [10]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 2003
- [11] 전은진, “컴퓨터 통신 대화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1
- [12] 정진수, 컴퓨터 통신 언어 연구, 역락, 2005
- [13] 조동욱, “웹 게시판에서 비속어 사용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 한국콘텐츠학회, 3-4, pp.1-10, 2003
- [14] 조아영, “웹 게시판 비속어 처리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컴퓨터 산업교육학회 논문집, 2-10, pp.1317-1327, 2001
- [15] 조오현·김용경·박동근, 컴퓨터 통신 언어 사전, 역락, 2002.